

지금도 이런일이 ... 장애인 수년동안 흑사당하며 노예생활 '충격'  
경찰, 해마다 터지는 사건 강력한 근절의지 없이 대책수립 시늉만

## '염전 노예' 두 번 분노한 시민들

### 전남 5개 장애인 단체 근본대책 마련 촉구

경찰이 신안군 외딴 섬 염전에서 40대 장애인들이 수년간 노예처럼 혹사당하다 극적으로 구출된 사건(광주일보 2월 7일자 6면)과 관련, 도서 지역 인권 침해 점검·단속에 나섰지만 지역민들 사이에서 '蘼蔽' 미봉책이 아닌, 인권침해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전남장애인인권센터(서남남여성장애인연대 등 전남 5개 장애인 단체는 11일 오후 신안군청 앞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신안군수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 대토론회, 재발 방지 종합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2009년 증도 ▲2010년 6월 암태 ▲

2011년 2월 지도 ▲2011년 6월 장산 등 끊어질 않고 있는데도, 경찰·자치단체 등의 실태 점검은 '사후약방문식'에 머물면서 균열되지 않고 있다

는 게 이들 주장이다. 신안군은 당시 각 읍·면사무소, 과 출소 등과 합동으로 매월 1회 이상 인권유린 및 임금착취 여부를 단속하겠다고 했고 경찰은 같은 해 7월 3일부터 한 달간 농촌 및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인권침해행위 일제 점검을 벌였다.

경찰은 이 시기, 지난 2006년 7월 안좌면 자라도 김양식장에서 2년7개월 동안 상습적인 협박과 폭행에 시달려온 정신 장애인을 발견, 가족에게 인계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는 하루 12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렸고 작업 중 손가락 일부

가 잘려나가는가 하면, 심한 폭행으로 치아가 거의 다 빠진 상태로 발견됐다.

장애인 인권센터 관계자는 "증도면·암태면 등 정기 운행 여객선이 다니는 섬은 위치인들이 접근할 수 있어 피해를 당하는 '염전 노예'들이 발견, 구조되기도 하지만 정기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곳은 훨씬 심각할 것"이라며 "생색내기 성 대책 수립이 아닌, 강력한 균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과 목포경찰은 10일 증도를 시작으로 신의도 등 신안군 일대 13개 섬 855개 염전과 180개의 직업소개소를 대상으로 염전 종사자 인권침해 사례 점검에 나선 상태다.

▲김영희 기자 kimhy@kwangju.co.kr



전남장애인인권센터 등 5개 단체는 11일 신안군청 앞에서 '장애인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장애인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 국민참여재판

#### 검사가 직접 신청 가능

그동안 피고인이 신청할 때만 진행하던 국민참여재판이 검사의 신청으로도 열릴 수 있게 됐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징지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올해 32개 법률의 제·개정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키로 하고 관련 계획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개인인은 현재 피고인이 원치 않으면 참여재판을 열 수 있도록 한 부분과 관련해 일부 강제주의 요소를 도입, 검사의 판단에 따라 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부임 이후 기강 확립에 신경을 쓰고 있는 장·정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 이지만 초등학생에게 알려주듯 꿈을 하게 했기면서 '치안 간담회 자리일 뿐인데 너무 세심하게 신경쓰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이번 행사는 경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장·정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 이지만 초등학생에게 알려주듯 꿈을 하게 했기 때문에 '치안 간담회 자리일 뿐인데 너무 세심하게 신경쓰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법원장의 '아름다운 퇴장'

### 강신중 광주가정법원장

#### 황영성 화백 작품 등

#### 5점 법원에 기증하고 퇴임

강신중(53·시법연수원 18기) 광주가정법원장이 12일 소장한 그림을 모두 법원에 기증하고 퇴임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가 퇴임을 앞둔 11일 법원 재산으로 등록시킨 작품은 황영성 광주시립 미술관장, 김영삼 작가 등이 그린 5점이다.

"가정지원장부터 가정법원장에 이르기까지 4년간 조직을 이끌었습니다. 무엇인가 남기고 싶었는데, 제 껌풀집에 걸어둔 그림이 가장 적당할 것 같았습니다."

강 법원장은 지난해 가정법원장에 취임한 후 줄곧 결손 가정,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적인 대책을 모색했다. 그 중에서도 소년법 위탁시설이 대표적이다. 법 조항에만 있는 이 시설에는 귀가 체분과 소년원 감호 처분 사이의 체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입소해 학교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곳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여건이 안돼 이들 청소년들은 소년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법원장이 된 뒤 광주시와 지금 까지 이 부분을 논의했는데,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후배들이 이들 청소년들을 위해 반드시 시설을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그는 또 법관들이 형사·민사 분야 아니라 가정법원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랐다. 법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지만, 형사·민사 사건의 원인과 배경이 되는 '가정문제'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고 그 테두리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특실히하면 사회도, 국가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사회병리상의 대부분이 가정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강 법원장은 12일 오전 퇴임 후 변호사로서의 새로운 삶에 도전할



12일 퇴임하는 강신중 광주가정법원장이 소장 중이던 유명화가들의 작품 5점을 기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기증 작품 앞에 선 강 법원장.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니다. 이것이 특실히하면 사회도, 국가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광주 금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광주지법·광주고법 판사, 광주지법 가정지원장, 광주 가정법원 선임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우리, 경찰이야? 초등학생이야?

### 광주경찰청장 순회방문 ... "기강확립 지나친다" 볼멘 소리

일선 경찰이 장전에 광주지방경찰청장의 경찰 순회 방문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강 확립과 원칙을 강조하는 장·정장 업무 스타일을 감안한 조치로, 일각에서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광주경찰은 12일 열리는 '치안 현장 간담회'를 앞두고 하루 전인 11일 직원 교육을 통해 ▲정장과 악수할 땐 손 흔들지 말고 잡기만 할 것 ▲정복을 입을 때는 경찰 마크 등을 원칙에 맞춰 착용할 것 등을 주문했다.

'최근 청장과 악수를 한 경찰 간부가 청장 손을 과도하게 흔들다 핀잔

#### ▲악수할 때 손 흔들지 말것

#### ▲파마한 직원 행사참석 금지

#### ▲경찰 마크 뚝바로 착용

을 들었다'는 말이 퍼지는가 하면, 모 간부가 불량한 복장 상태로 위로금을 받으러 갔다가 청장에게 질책을 받고 해당 경찰서에 대한 복무기강 감찰이 진행된 뒤 나온 조치다. 간담회 이후 사소한 것으로 감찰 등 괜한 불이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14일 같은 행사가 예정된 북부경찰도 행사에 앞서 직원들에게 복장 준수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들 사이에서는 "파마한 직원은 당일 참석하지 말라"거나 '복장이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경찰서에 일진도 하지 말라"는 말도 떠돌았다.

부임 이후 기강 확립에 신경을 쓰고 있는 장·정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 이지만 초등학생에게 알려주듯 꿈을 하게 했기 때문에 '치안 간담회 자리일 뿐인데 너무 세심하게 신경쓰는 것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광매 9재>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소 재 지 및 면적 [m <sup>2</sup> ]	용 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 고
<b>[아파트]</b>						
2013타경 19579	1	나주시 송월동 660, 송월주공아파트 105동 5층, 503호, 49.97m <sup>2</sup>	아파트	73,000,000원 차입있음	73,000,000원	
2013타경 23301	1	북구 설죽로 545, 101동 6층 603호, 59.935m <sup>2</sup>	아파트	128,000,000원	128,000,000원	
2013타경 23653	1	서구 화정동 400-16, 꽃담마을 이-편한세상 101동, 12층 1201호, 147.64m <sup>2</sup>	아파트	370,000,000원	370,000,000원	
2013타경 25802	2	동구 증심동 43번길 11, 201동 4층 402호 아파트	아파트	330,000,000원 차입있음	330,000,000원	
2013타경 26270	1	광천구 소촌로 52번길 11, 303동 12층 1201호 아파트	아파트	173,000,000원	173,000,000원	
<b>[단독주택, 다가구주택]</b>						
2013타경 23851	1	동구 소재동 602-14, 92m <sup>2</sup> [공유자박은영자] 5분지의1	대	13,986,360원	13,986,360원	일괄매각, 공유자부수권행사
2013타경 26289	1	나주시 흥곡면 59-1, 255m <sup>2</sup>	대	23,466,700원	23,466,700원	일괄매각, 임차인있음
<b>[연립주택, 다세대주택]</b>						
2013타경 18415	1	동구 산수동 392-2, 태인빌라 2층 204호, 74m <sup>2</sup>	다세대	32,000,000원 차입있음	32,000,000원	
2013타경 25048	2	동구 426-17, 채림빌라, 예아 3층 301호, 59.09m <sup>2</sup>	다세대	67,000,000원 차입있음	67,000,000원	
<b>[단지/임야/전/답]</b>						
2013타경 21084	1	나주시 공사면 날창리 37, 340m <sup>2</sup> [현황구가] 1호부지	대	16,047,000원	16,047,000원	경석수 및 수목포함
2013타경 22322	1	서구 벽진동 62, 962m <sup>2</sup> [공유자권수소재] 62분지의1	대	173,525,000원	173,525,000원	매각외건물소재

사건번호	물건 번호	매각 물건	소 재 지 및 면적 [m <sup>2</sup> ]	용 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 고
<b>[나주시 용산동 154-27, 1380m<sup>2</sup> [도시계획도로]]</b>						
2013타경 23394	1	나주시 용산동 149-4, 1111m <sup>2</sup>	일야	240,434,000원	240,434,000원	타인소유수수료[조수금]수령
		동소 154-3, 1801m <sup>2</sup>	일야			
		동소 390-23, 1400m <sup>2</sup>	일야	96,000,000원	96,000,000원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구
<b>[나주시 통곡동 427-5, 27m<sup>2</sup> [현황전지]]</b>						
2013타경 23561	2	나주시 통곡동 427-5, 27m <sup>2</sup> [현황전지] 일부도로	일부도로	17,737,500원</td		